

II. IMF 경제 정보

1. 금주의 정책 이슈

□ 경기부양을 위한 「소비자 금융 활성화 방안」

- (지원 내용) 주택구입 자금으로 총 3조 6,5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 규모는 총 7조 원에서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
 - 주택구입 지원은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 형식이 주를 이룸
 - 국민주택기금 지원액 2조 원 가운데 1조 원은 지난 24일 중도금 대출 신청을 받았는데 하루만에 마감되었음
 - 내구소비재 지원은 보증 확대, 운전자금 지원, 채권 매입 등 대리점이나 판매자를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음

<소비자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지원 내용>

구분	지원 내용	재원 및 지원규모
주택	- 주택구입 자금	- 총 3조 6,500억 원 · 민간 금융기관에서 1조 6,500억 원, · 국민주택기금에서 2조 원
	- 미분양 해소 자금 · 임대사업자 구입 자금 · 미분양주택 매입	- 총 5,000억 원 · 주택은행에서 2,000억 원 · 주택공사에서 3,000억 원
	-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추가 출연	- 99년중에 2,000억 원
내구 소비재	- 대리점 특례보증, 운전자금	- 업체당 2억 원
	- 판매회사 보증대출, 은행 할부금융 채권 매입	- 3조 1,600억 원

- (의미) 「소비자금융 활성화 방안」은 생산자 중심이었던 정부의 자금 지원 정책이 수요 부문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함
 - 정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기업 중심이었던 기존의 은행 대출을 소비자로 확대하고자 하고 있음
 - 이를 통해서 소비를 직접적으로 촉진시키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것임

- (내구 소비재 지원 정책의 효과) 내구소비재 판매업자들의 자금난이 다소 완화될 것임
 - 현재 가전제품을 비롯한 내구소비재 대리점들은 「자금 부족 → 판촉 부진 → 매출 부진 → 자금 부족」이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음
 - 정보의 보증 확대와 자금 지원은 이러한 악순환을 개선시키고 판매와 소비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

- (주택구입 지원 효과) 주택경기 부양대책 중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임
 - 정부의 중도금 지원은 최근 자금부족으로 빈번해지고 있는 주택 계약 해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임
 - 대출 심사 후 실제 대출이 비교적 신속하게 수행되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임

- (보완 과제)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개선하는 것이 관건이며 소비자 금융의 수혜 대상을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
 - 현재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보유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만이 아니라,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소비를 스스로 축소하려는 심리에 기인함
 - 수요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축된 소비 심리를 개선시켜야 할 것임
 - 정부의 지원이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제한을 완화하여 정책의 수혜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임
 - 실제 미분양이 많은 중대형 규모에 대한 중도금 지원 제한, 타 금융기관의 대출 경험자에 대한 제한 등

(정 반 석 bsjoun@hri.co.kr ☎724-4045)